

여야 대치에 '2월 국회' 오리무중

김태우·신재민 폭로, 손혜원 투기 의혹 등 갈등 지속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택시·카풀 갈등 등 현안 산적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계다가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빈손 국회'를 우려하는 이유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

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수도북한 입법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청문회, 특검 도입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있다"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 정치, 고발정치, 정쟁을 그만두고 2월 국회로 나와 산적한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 위원 임명 철회와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김병도 비상대책위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권 대진 이번주 윤곽

황교안·오세훈·홍준표 거취 표명 할 듯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 대진표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또 유력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 결정 및 출마 선언도 설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오 전 시장은 오는 31일 오후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미래'의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4일 대구 방문에서 이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 등을 전한 뒤 출마 선언 시기에 관해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여의도 교육공제회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 전대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 전 대표 표는 지난 26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 "이번 전대의 핵심은 '홍준표 재선인' 여부"라고 말해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총리에 대해 전대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국당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되고,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

육에 참석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 의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일단 이번주 초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과, 비대위에서의 전대출마 자격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의 출마 결정에 따라 이번 전대가 '빅2' 또는 '빅3'의 대진표로 치러질 전망이다. 가운데 기타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잇따른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주호영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김광림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오는 31일에는 심재철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각각 당권 출마표를 던진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안철수 등판론' 솔솔

지지율 부진에 유승민과 역할론... 내달 8~9일 연찬회

내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지율이 한 자릿 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공세가 잦아들지 않자 창당 주역인 유승민·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내달 8~9일 경기도 양평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바른미래당 연찬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유 전 공동대표의 당 공식행사 참여는 7개월만이다. 그는 작년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대표직을 사퇴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연찬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나 당 진로와 원내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가 당선에 큰 힘이 됐던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바른정당 출신의 한국당 입당이 잇따라 좌절된 것도 유 전 공동대표가

당 안에서 보수재건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당 대구시당은 바른정당 출신으로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류성걸 전 의원과 황영현·김경동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의 입당 신청을 반려했다. 경남도당도 조해진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했다.

이런 가운데 '3월 복귀설' 등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조기 등판론도 심심찮게 언급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공동대표가) 총선 전에 돌아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이러한 관측을 자극하고 있다.

당내에선 안 전 공동대표가 언급한 체류 기간 1년이 끝나는 올해 8~9월 복귀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하지만 안 전 공동대표가 지난 4·13 총선에서 당 창당 4개월 만에 38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는 만큼 서둘러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역을 평화·통합·문화가 있는 곳으로"

박지원, 토론회 개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존의 목포역을 평화·통합·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목포역사의 거점화, 현대화, 활성화 의미와 필요성', '바람직한 목포 역사 발전 방향을 위한 제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운선 목포문화원장도 공동대표는 "목포는 문화적 가치가 많은 지역"이라며 "기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목포역 일대를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상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문화를 담고 있는 박물관으로 목포역사를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방 목포의 문화 예술적 가치와 역사 가치가 더해진 목포역사가 새롭게 건설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상징이자,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목포는 국도 1·2호선의 출발지로서 부산까지 연결된다. 목포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영호남 통합에도 기여한다. 여기에 제천, 원주, 강릉까지 가는 강호축 노선이 건설되면 목포역은 국도균형발전의 상징이 된다"고 부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선관위, 30일 조합장 입후보 안내 설명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전남 22개 시·군 선관위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1달여 남은 시점에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입후보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 요건·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

지되는 선거운동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단속 방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 정관 등에 따라 상이한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요령 뿐 아니라 선거 전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여서 입후보예정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